

OE 法助動詞構文의 변천과 文法理論

金 寅 淑

(英文科 副教授)

0. 본고에서는 현대영어 法助動詞(modals)의 前身인 고대영어(OE) *sculan*, *willan*, *magan*, *cunnan*, *motan*과 그 構文의 변천을 살피고, 이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文法理論으로 족하며 變換理論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최근의 가설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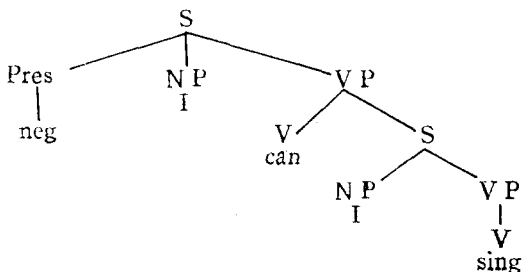
1. OE와 ME를 관찰할 때, 우리는 하나의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현대영어에서 흔히 法助動詞(modals)로 불리워지고 있는 *sculan*, *willan*, *magan*, *cunnan*, *motan*과 같은 동사들이 OE에서는 본동사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i) 인칭 및 수(數)에 따른 굴절변화를 일으키고, (ii) 否定辭配置(Neg-placement)와 도치(Inversion)에서도 동사처럼 행동하고, (iii) 서로 나란히 並列되기도 하고, (iv) 不定詞句나 動名詞句에 나타나기도 하고, (v) 문장 끝에 놓이기도 하고, (vi) 補文을 거느리기도 하며, (vii) 직접목적어를 받기도 했다.

- (1) a. hwæt þær foregange, oððe hwæt þær eftfylge, we ne *cunnun* 'what came before, or what comes after, we do not know'. Bede
 b. she *Koude* muche of wandrynge by the weye 'she knew much of wandering by the way'. Chaucer
 c. se þe *sculde* him undred denera 'he who owed him a hundred denarii'. c.975 Rushworth Gospels, *Matt.* xviii 28
 d. ac him sealde ða mihte se ðe *mæg* ealle ðing 'but he who can do all things gave him the power'. c.1000 Aelfric, *Feria vi in Prima Ebdomada Quadragesimae* 157
 e. ich *wille*, pat þou suere... 'I want you to swear...'. 1300 *Havelok* 388
 f. heora non swaðeah *nolde* befrinian hwæt heo ðær *wolde* 'none of them, however, would ask what she wanted there'.
 c. 1000 Aelfric, *Feria VI in Tertia Ebdomada Quadragesimae* 62

이것은 OE에서는 조동사(Aux)라는 통사범주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현대영어(ModE)에서는 범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OE에서는 補文(complement)을 거느리는 일반동사와 똑 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an*을 동사로 볼 때 ne con ic noht singan 'I cannot sing' (Bede, *Cædmon*)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생성론자들(generativists) 중에서 이 입장을 취하는 이로는 Wagner(1969)와 Allen(1975)이다. Visser(1963~73 §1565)도 OE의 *willan*을 두고 말하면서 그것이 본래는 동사였으나 점차 조동사의 지위로 격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ModE의 *shall*, *may*, *can*, *will*, *ought*에 관해 언급하면서 본시 이들이 기능어들(function words)이 아니고 통사적으로 일반동사들과 다를 바 없는 완전히 독립된 概念動詞(notional verb)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 가정이 올바른 것이라면 OE에서 ModE에 이르는 동안에 동사구조에 급격한 재분석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재분석이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통사변화의 본질과 공식적 통사분석의 추상성에 관한 모종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법조동사전신(pre-modals)과 관련해서 우리는 변화의 두가지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 (i) 의견상 무관하게 보이는 개별적인 변화들이 ME 후기에 발생했으며, (ii) 이 변화는 *cunnan*, *magan* 등의 동사들이 법조동사라는 새로운 범주로 재분석되는 제2의 단계를 유도했다. 이 같은 재분석이 16세기에 발생했다고 보면 이는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통사변화에 어떤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 시기에 재분석을 유발시킨 통사변화들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i) 이들 법조동사전신(pre-modals)은 직접목적어를 거느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변화는 이미 ME에 끝난것 처럼 보이나 어떤 것은 17세기 이후까지도 끈질지게 본동사로 버티고 있는 것도 있다.

(2) a. the leeste ferthyng pat y men *shal*.

c. 1425 Hoccleve, *Min. Poems* xxiii 695

b. for all the power thai *mocht* 1470 Henry, *Wallace* iii 396

c. by the feith I *shall* to god. 1530 *Court of Love* 131

d. yet *can* I Musik too; but such as is beyond and Voice or Touch.

1649 Lovelace, *Poems* (1659) 120

(ii) 법조동사전신들을 제외하고는 과거현재동사들(preterite-presents)이 소멸된다. 이들 대부분의 동사들(*sculan*, *magan*, *agan*, *durran*)은 과거현재동사로 알려진 굴절동사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강변화동사였으며 Pre-Germanic에서는 과거형이 현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3인칭단수 현재형은 각각 *sceal*, *man*, *ann*, *dearr*,이며 어미 *-ep*가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부류에 속했던 많은 동사들(*witan*, *dugan*, *unnan*, *purfan*, *munan*, *benugan*)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ModE에 남은 소수의 법조동사전신만이 아직 3인칭 단수 현재 *-s*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많은 굴절동사들중에서 하필이면 현재 쓰이고 있는 법조동사들만이 소멸되지 않고 생존했다는 것은 하나의 우연이라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

(iii) 이들 법조동사전신 특히 *shall/should*, *may/might*, *can/could* 등의 현재/과거형의 시간관계가 점차 불투명해진다. 과거현재동사들(*preterite-presents*)에는 직설법과거와 가정법 사이에 음성적 구별이 없었다. 따라서 ModE의 *should*는 음성적으로 OE의 직설법과거도 되고 가정법의 형태도 된다. 그런데 직설법과거형은 가정법과의 경쟁의 결과에서 인지는 몰라도 심히 불안정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ModE의 *must*나 *ought*는 역사적으로는 과거 시제이지만 지금은 과거(시제가 아닌 시간)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으며, 또한 *shall/should*, *will/would*, *can/could* 등의 관계는 시제구별에 입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should*, *would*, *could*는 오히려 현재—미래의 시간개념을 지니고 있다.

*may/might*에 있어서도 시간관계의 불투명성이 점차 깊어졌다.

(3) a. and hiða ealle sæton, swa swa *mihte* beon fif ðusend wera'. and they all sat then; it is possible that there were 5000 men'

Aelfric, *Homilies of the Anglo-Saxon Church*

b. these two respectable writers *might* not intend the mischief they were doing. 1762 Bp. Richard Hurd, *Letters on Chivalry and Romance* 85

현대영어에서 'You *may* be right'과 'You *might* be right' 사이에 시간관계의 의미차가 없는 것과 같다('it is possible that...').

또한 허가(permission)를 나타내는 *may*의 과거형은 이미 소멸되어 버렸으며, He *might* do it는 이제는 더 이상 'He was allowed to do it'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may/might*의 시간관계의 불투명성(opacity)은 *might*가 *may*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자주 쓰이면서 점차 깊어갔다.

(iv) 어순(word order)에 있어서 SVOM(M=pre-modal)은 줄어들고 SMVO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일반 교제에서는 OE의 어순을 두가지로 잡고 있음이 보통이다. 그 하나는 주절에서의 SMVO이며 다른 하나는 종속절에서의 SOVM이다. 그런데 만약 법조동사전신을 다른 일반동사와 구별하지 않고 또한 어순의 기저형을 SOV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몇가지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OE에는 동사를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이동시키는 규칙이 있었고 가정해 볼 때, 이 규칙은 주절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수의적

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OE어순이 주절에서는 SVO, 종속절에서는 SOV 또는 SVO가 되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 이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순을 기대할 수 있다:

- (4) 주 절 : a. NP_s M V NP_o
 b. NP_s M NP_o V
 종속절 : a. NP_s NP_o V M
 b. NP_s M NP_o V
 c. NP_s M V NP_o

우리는 여기서 두개의 가능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범동사(root, modals)로서의 M와, 둘째는 진술완화동사(epistemics)로서의 M이다.

- (5) a. NP_s[(NP_s)NP_o V]_o M
 b. [NP₂ NP_o V]_s M

a의 경우 매물문 [...]o 속의 주어(NP_s)는 표면구조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b의 경우는 매물문의 주어 NP_s가 상위동사 M의 표면상의 주어로 상승되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요소 배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동사구이동(V-Fronting)이 양쪽 어느 cycle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SOVM이 될 것이고 이 어순은 종속절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한편 b에서 동사구이동규칙이 상위절에 적용되어 M이 앞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하위절의 주어 NP_s가 일종의 scrambling rule에 의한 전방이동에 의해 이동이 되면 SMOV가 될 것이다. 이같은 어순들은 OE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SOV란 기저형과 동사구이동이란 변형규칙(주절에서는 의무적이고 종속절에서는 수의적인)을 설정하고, 범조동사전신을 기저동사로 설정함으로써 OE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ME에 오면서 기저형의 재분석이 일어나 SVO가 되고 동사구이동은 잉여규칙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범조동사전신이 아직도 동사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났다고 볼 수 있다.

- (6) a. NP_s M[(NP_s) V NP_o]
 b. [NP_s V NP_o] M

이렇게 되면 SMVO와 SVOM은 그 나타나는 자리가 일정해지는데, 전자는 범조동사의 경우이고, 후자는 진술완화동사의 경우가 된다. 그런데 점점 SVOM은 줄어들고 SMVO가 후자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v) 범조동사전신을 제외한 모든 동사에 to-부정사구가 잠식하기 시작한다. 범조동사를 고립시킨 또 하나의 변화는 to-부정사의 출현이다. 일반 교재는 후기 OE와 초기 ME 사이에 일어났던 to-부정사와 원형부정사의 싸움을 기술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to-부정사의 승리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to-부정사가 우세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논란의 여지를

담고 있으나, 맨 처음 *to*의 출현은 의미론적 기초에 두고 있는데, 이는 본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점차 *to*의 전치사적인 힘이 약해지고 초기 ME에 와서는 *to*-부정사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o*가 법조동사전신 바로 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to*가 전치사로 해석되는 한 *to*는 이 자리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이들 법조동사들의 의미구조내지는 특성에 「방향」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to*-부정사의 *to*가 전치사로서의 힘을 상실하고난 뒤에도 이들 법조동사들이 *to*의 감식을 계속 완강히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법조동사 전신이 이미 독특한 부류(class)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to*가 감식하는 조건은 복잡하고 신기하기까지 하다. *to*-부정사는 현대영어 이전에는 주어의 자리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원형부정사는 이 자리에서 흔히 일어났다. 그러나 *to*-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려면 외치된 자리('extraposed' position)에서만 가능했다. *to*-부정사가 외치되어 쓰인 것은 OE에서 시작하여 ME에서는 흔했다. Visser(1963~73: §901)에 따르면 *to*가 전치사(방향·운동)에서 의미론적으로 공허한 sandhi form으로 되어 버리고 다만 부정사의 표시기능을 하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1500년경에 원형부정사는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조동사전신들이 16세기에는 하나의 독특한 문법 부류로 간주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2. 이와같이 서로 독립된 다섯개의 변화들이 일어남으로써 법조동사전신들을 하나의 새로운 부류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변화를 다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i) 법조동사전신의 직접목적어 상실, (ii)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과거·현재동사(preterite-presents)의 소멸과, 그 결과로 나타난 이들의 고립적 행동, (iii) 이들의 과거시제가 지나는 시간관계의 불투명성, (iv) SVOM 또는 it M [NP...]s 구조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진술완화 장치의 출현, (v) 이들 법조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사에 *to*-부정사가 발달하므로써 연유된 이들의 고립. 초기 OE에는 이들 법조동사전신이 그들 특유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후기 ME에 들어오면서부터 위에서 언급된 다섯가지의 서로 독립적인 변화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특정한 부류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또한 일찍부터 하위절의 주어는 표면구조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 *try*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7) a. Bill *could*— do that.

b. Bill *tried*— to-do that.

이들 변화는 15세기말 경에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직접목적어들이 이 무렵에는 소멸되었다(*can*을 제외하고는). 법조동사전신이 아니면서 과거·현재동사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purfan*이다. 진술완화(epistemic)를 나타내는 외치변형(Extraposition) SOV→SVO라는

기저형의 변화와 함께 발달했다. 법조동사전신들이 원형부정사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것은 1500년경 부터이다. 이제 법조동사전신들은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나 또는 의미론적으로 하나의 특유한 부류로 확립되었다. 이 시기에 이들은 modals라는 새로운 문법 범주로 재분석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문법은 더 이상 이들을 동사로 취급하지 않고 점차 예외적인 특성을 띤 새 범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이는 16세기에 들어와서 일련의 변화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으며, 이 모든 현상은 재분석의 결과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들 변화가 모두 16세기라는 시기에 함께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들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

(i) 법조동사전신들은 더 이상 부정형(infinitives)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이 부정형으로 쓰인 마지막 예는 *that appeared at the fyrste to mow stande the realm great stede ...1533 More, Works 885 c*와, Thomas Cooper가 그의 *Thesaurus Lginuae Romntce et Britannicae*(1565)에서 쓴 *to may*이다.

(ii) 법조동사전신들은 더 이상 *~ing* 어미를 달지 못하게 된다. 이 형태가 쓰인 마지막 예는 *the potential mode signyfyeth a thyng as mayyng or owing to be doone, c.1512 Linacre, Progymnasmata*와, *maeyinge suffer no more the loue and deathe of Aurelio, 1556 Aurelio and Isab. mix*이다.

(iii) 16세기 중엽부터 표준방언에서 법조동사전신을 두개 이상 동사와 함께 가지런히 배열하는 예가 소멸된다. 그 마지막 예는 *I feer that the emperor will depart Thence, before my letters shall may come unto your grace's hands, 1532 Cranmer, Letters*이다.

(iv) 법조동사전신은 더 이상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게 된다. 그 마지막예는 *if wee had mought conuenient come together, ye woulde rather have chosin to have harde my minde of mine owne mouthe, 1528 More, Works 107 H6*이다.

이들 네개의 변화는 Aux→T(M)이란 규칙을 도입하여 M으로 부터 법조동사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포한다 : 첫째, 어떤 S에도 M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둘째, M은 어떤 형태의 분사로도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for-to 보어로도 일어나지 않는다. 넷째, 어떤 S에서도 have to나 be가 이들 modals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또한 이와 거의 동시에 세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법조동사 재분석의 자동적인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v) 부정사 배치(Neg Placement) 규칙 이전에는 not을 첫 동사 다음에 놓았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생성해냈다.

(8) John *could not* take the bread.

John *took not* the bread.

이제 조동사와 본동사가 갈라진 마당에 만일 이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9)와 같은 문장들이 되었을 것이다

(9) John *could take not* the bread.

John *took not* the bread.

이와같이 가정해 볼 때, 문법은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을 강요당했을 것이다. 즉, *not*을 조동사의 바로 뒤에만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고쳐 M와 V양쪽에 모두 적용시켜 이전의 표면구조(8)를 유지시킬 것인가 였을 것이다. 문법은 전자를 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동사 하나만 가지고 있는 절에서는 16세기초에 와서 다음 두개의 문형이 발달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10) He *did not* speak.

He *not* spoke.

(10)은 부정사배치 규칙이 *not*을 Aux와 V사이에 끼어넣도록 재편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He *not spoke*와 같은 구문은 17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퇴조되기 시작하며, do-형태가 표준화되기 시작한다. I *spoke not* 구문은 현대영어에 와서도 I *think not*, I *hope not*과 같은 고립된 구조에서 남아있으나 17세기 후반 부터 점차 퇴조되면서 시나 구식 문장에만 남게 된다.

(vi) 이와 비슷한 변화가 S—V도치(Inversion) 변형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는 예전에는 *Could John take the bread?*와 *Took John the bread?*를 모두 생성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와서는 조동사라는 새로운 문법범주가 생겨난 마당에, 도치규칙은 Aux에만 국한 시키든가 아니면 Aux와 V에 모두 적용시키든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생겼으며 결국 문법은 전자를 택했던 것이다. Jespersen이나 Viesser에 따르면 *Did John take the bread?*의 구문은 이미 16세기에 일반화되었으며, *Took John the bread?*는 17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퇴조되었다. 이는 Do-Support rule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규칙은 시간적으로 오래 끌면서 복잡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당시의 문법학자들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것 같다. 오랜 시간을 두고 두개의 형태가 서로 경쟁하였다. *do*는 이미 ME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Jespersen은 *do*가 강제없는 기능어로 흔히 쓰이게 된것은 16세기에 와서이며 17세기부터는 세가지의 경우 즉 부정구문(Negation)·도치구문·강조구문에 국한되어 쓰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변화는 위에서 가정한 재분석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i) 이제 법조동사 전신은 더이상 동사가 아니며 VP절점에 지배되는 상위절의 술어동

사도 아니다. 이같은 재분석이 일어나자 *be going to*, *have to*, *be able to*와 같은 새로운 조동사군(*quasi=modals*)이 출현하게 된다. 다소의 뉘앙스는 있지만 이들은 법조동사들(*modals*)과 의미론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들 새동사군이 일반동사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는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동사들이다. 그런데 *can*, *may*, *must* 등이 법조동사는 재분석되자 일종의 진공상태를 만들어냈는데, 문법은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동사들을 새로 만들어 넣으로써 이 공백을 메꿀것 같다. 시기도 일치한다. 이들 새동사군이 출현한 최초의 예는 다음과 같다:

(11) a. to *be able to* wed hure, 1440

The Gesta Romanorum, ed. S. J.H. Herrtage (1879), p. 269.

b. thys unhappy soule...*was goyng to* be broughte into helle for the synne and onleful lustys of the body, 1482 *Monk of Evesham* 43

c. he told him he *had not to* beleeve, that the couetousness of Virginio... had moved Ferdinand, 1579 Geoffrey Fenton, Guicciard (1618) 6

이들 새 형태의 발달에 관해 언급하면서 Strang (1970 : p.150)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English developed a repertoire of full verbal paradigms to supplement the defective and functionally restricted modals'.

3. 우리는 이 시기에 일어난 문법의 재분석을 다음과 같은 구절구조 규칙(P-S rule)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조동사전신은 OE에서는 V에, EModE에서는 M에 들어가게 된다.

(12) a. OE	b. EModE
S→NP VP	S→NP Aux VP
VP←V(NP)	Aux←T(M)
NP→ $\begin{Bmatrix} N \\ S \end{Bmatrix}$	VP→(have+en) (be+ing) V(NP)
	NP→ $\begin{Bmatrix} N \\ S \end{Bmatrix}$

Neg Placement

NP V X⇒NP V neg X NP Aux ⇔ neg X

Inversion

NP, V X⇒V NP X NP Aux X⇒Aux NP X

여기서 보여지는 법조동사전신의 급격한 재분석은 16세기에 일어난 앞서 언급된 일곱가지의 변화들을 일시에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 논의될 역사적·통시적 변화에 대한 설명력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시기는 놀랍게도 일치한다.

이 재분석은 영어문법의 기본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통사변화이다. 일련의 변화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실을 달리 우발적인 것으로만 취급해서는 이해가 안간다. 혹자는

이같은 변화들을 보다더 추상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분석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분석은 일곱가지의 예외적인 특성들이 문법의 각 부분에 동시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할런지도 모른다. 이런식의 추상적 분석으로 통시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분석가들은 기본적인 구절구조 규칙은 변하지 않으며 급격한 재분석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다. (cf. Robin Lakoff 1968; Traugott 1972; Stockwell 1976).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문법이란 하나의 규칙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문법에 대한 이같은 견해만이 앞서 언급한 변화들의 동시성을 설명해 준다. 이들 규칙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복잡하게 작용하며, 문법체계의 한 모서리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부위에 일종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 굴절의 지배를 받았던 동사의 일부가 문법의 각부위에서 독립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하나의 새로운 범주로 재분석 되었으며, 그 결과 Neg Placement와 Inversion 등의 변형규칙에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 재분석은 범조동사전신이 동사인지 아니면 독특한 범주인지를 불분명하게 만든 일련의 변화들 때문에 일어났다. 즉, 이들 범조동사전신을 하나의 세 범주로 분석하므로써 이들을 예외적 특성을 가진 한 묶음의 동사로 간주해야하는 무리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특성들을 규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석이 일어났다고 본다. 바꿔말해서, 예외적 특성들이 문법을 불투명(opaque)하게 만들었으며 그 불투명성(opacity)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강력히 시사하는 바는 문법이란 일부 문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base rule change가 없다는 등의), 통사부문에서도 일종의 투명성원칙(Transparency Principle)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may나 take가 굴절에 있어서나 부정사구형성에 있어서나 그밖의 여러 부위에서 각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자 범조동사전신의 일괄적인 재분석이 일어났다. 결국 문법은 많은 예외적 특성들을 무작정 수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투명성원칙(Transparency Principle)은 이같은 재분석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문법원리이며 이론이다. 보다 덜 추상적인 파생을 허용하고 투명성원리를 끌어들이는 문법이론은 여러가지 표면변화들의 동시성을 설명해 줄뿐만 아니라 이들 변화의 원인도 또한 설명해줄 수 있다. 이들 잇점은 Ross나 McCawley(197)나 Pullum and Wilson(1977)의 주장내지 분석능력을 증가한다. McCawley는 *can*, *must* 등은 동사이며 다만 분사나 부정사 형태가 없는 결여동사(Defective Verbs)의 범주에 속할 뿐이라고 말하고있다. 그것은 이들이 *-ing -en*, 그리고 *to*-부정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왜 현재분사·과거분사·부정사가 동시에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왜 이 변화가 결여동사에만 일어나고 take나 go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들형태(*-ing, -en, to*)가 결여동사에서 떠나버린 것과 동시에 도치구문과 부정구문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왜 부가의문형성(Tag Formation)과 수의 일치(Number Agreement)에서도 결여동사가 동사와 달리 행동하는가? 등의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의 주장이 변화의 동

시성을 「기술」할 수 없을진대 「설명」할 수는 더군다나 없을 것이다.

투명성원리는 문장 파생의 복잡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기저형과 표면구조의 거리를 좁혀준다. 또한 투명성원리는 통사변화이론의 한 성분이기 보다는 문법이론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조동사의 재분석의 경우에서 우리는 다섯가지의 얼핏 서로 무관해 보이는 변화들이 문법의 각기 다른 부위에서 발생했음을 살핀바 있다. 이들 단편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결과, EModE 문법에 일련의 예외표시가 따라붙게 되었다. 이같은 예외표시의 한가지 예는 3인칭단수 현재의 굴절형에서 엿볼 수 있다.

즉 다른 모든 동사에는 어미 -s가 첨가되는데 반해서 법조동사전신에는 어미가 첨가되지 않는 예외가 생겼다. 또한 다른 동사들에는 과거시제 어미를 첨가해서 「과거 시간」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반해서 법조동사전신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므로 법조동사전신을 기저적으로 동사의 범주로 가정한다면 이단계에서의 영문법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예외표시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되어온 예외들로 인해서 파생구문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有標性(markedness)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의 영문법은 어떤 부위에 유효성이 점차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투명성 원리가 예외성즉 불투명성(opacity)의 허용한계를 기술하는 것이라면 이 원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같은 예외들이 그 허용한계에 이르던 복잡성 또는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적인(therapeutic) 재분석을 필요로 하게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문법원리는 급격한 재분석이 일어나게 될 한계점을 예측해 준다. 영어 법조동사의 경우, 처음에는 점증하는 예외표시들과 함께 복잡도가 증가하여 위험수위에 육박하자 이에 대한 치료 조치로써 급격한 문법의 재구성(re-structuring)이 일어남으로써 예외성이 문법적으로 제도화 내지 형식화 되고 불투명성이 한꺼번에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문법에 법조동사라는 하나의 새 범주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파생형태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되어버렸다.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지닌 이와 같은 급격한 재분석은 불투명성의 허용 한계를 규정해주는 문법원리에 의해 예측된다.

투명성원리는 귀납적인 일반화를 그 배경에 깔고있다. 영어 법조동사에 관련된 재분석과 같은 급격한 문법의 재구성을 검토함으로써 얻어지는 귀납적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먼저 문법의 어떤 부위에 도사리고 있는 파생적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효력을 지닌 재분석현상을 검토하고 난 다음, 이 재분석이 일어났을 때 유지되었던 불투명성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재분석은 통시적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법원리로 설명이 된다. 하나의 문법이 치료를 받기 위해 재분석되어야하는 위험수위를 진단해 냄으로써, 우리는 여러 문법들이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복잡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생각의 배후에는 두가지의 가정이 깔려있다. 첫째, 문법은 예방적인 효과가 아니고 치료적인(therapeutic) 효과를 발휘한다. 둘째, 치료적인 재분석은 꼭 필요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변화는 문법의 한 부위에 일어나면서 치료적인 효과도 미치겠지만 그밖에 다른 부위들에서도 파생적 불투명성을 치료하는데 기여한다. 그리하여 ME에서의 과거·현재 동사의 점차적인 소실은 법조동사 전신을 굴절면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동사 굴절이 평준화 되고난 뒤에는 법조동사전신만이 3인칭·단수·현재시제에서 -s 어미가 결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외표시를 하기에 이른다. 만일 문법기능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이와같은 변화는 차단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문법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파생적 불투명성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문법은 불투명성의 위험수위에도달하도록 일련의 변화를 축적한다고 비유할 수도 있다. 위험수위가 한계에 다다르면 재분석과 같은 급격한 사태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법의 역할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있다고 하는 견해는 Samuels(1965)와 Paul(1880)에서도 엿볼 수 있다. Samuels는 Sapir(1921 : p. 196), Saussure(1916 : p. 227), Herman(1931 : p. 128), Jespersen(1941 : p. 23, 58)을 인용하면서 음변화에서 야기되는 문법적인 모호성 또는 불투명성은 새로운 유추형태를 선택하므로 교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Paul(1880 : p. 251)도 언어가 예방적인 기능을 하여 결함 발생을 방지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es gibt in der Sprache überhaupt keine Präkautio gegen etwa eintretende Übelstände, sondern nur Reaktion gegen schon vorhandene'.

두번째 가정은 치료적인 재분석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재분석은 투명성원리와 같은 문법이론에 의해 필요성이 유발될 때에만 발생한다.

4. 영어 법조동사의 재분석을 두고 볼때, 이 변화로 구절구조규칙(p-s rule)을 재편했고, 이에 따라 Aux라는 범주가 새로 생겨났으며, Tense가 본래의 등사적 자질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어—조동사의 도치(Inversion)나 부정구 배치(Neg. Placement)와 같은 변형을 동시적으로 재구성하게 했다. 수의 일치(Number Agreement), 부가의문형성(Tag Formation), 동사구삭제(VP Deletion)에서도 변화가 뒤따랐다. 또한 법조동사라는 새로운 범주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have to*, *be going to*, *be able to*와 같은 새로운 어휘항목들을 추가시켰다. 이 예만 보더라도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문법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엄밀 하위범주 구조(strict sub-categorization frames)에서의 변화, 어휘항목들이 지니는 의미의 변형규칙들의 도입, 범주의 변화, 어휘 잉여규칙의 변화 등이 뒤따랐다. Klima(1964a, b)에서 언급되고 있는 변형규칙의 재배열, Kiparsky(1968 c)의 규칙소실, Haiman(1974)의 새로운 표면여과장치(surface filters)의 도입등도 들 수 있다. 이 분석방법들이 올바르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 즉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변화들을 형식화하여 통시적 변화이론을 추출해내는 일이 가능하

다는 명제에 대하여 회의를 품지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이 처럼 복잡한 통시적 변화들을 형식화 내지 규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문법들이 아무리 변해도 상호이해 (mutual comprehensibility)는 유지되어야 하여, 다음세대의 화자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기능적 요건 때문에, 모든 어휘항목이 일시에 바뀌거나 VSO 어순이 앞 세대에 존재한 적도 없는데 SVO의 기저형이 VSO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같은 제한은 많은 종류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할 것이며, 예를들어 새 어순이 문법체계 속으로 스며들어나와 처음에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보다 널리 일반화되는 식으로 변화를 점진적으로 일으킨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이해에 관한 기능적 제약들이 형식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심히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생성론의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시적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변화에 관한 형식화의 추구였다. neogrammarian 전통에 바탕을 둔 이들 연구는 여러가지의 유추과정에 호소하면서 표면형태(대개는 음운론적인)의 가능한 변화를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Kiparsky(1968 a)는 음운변화를 논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유형의 문법변화, 즉 규칙첨가 또는 규칙소실, 규칙의 간소화 또는 복잡화, 규칙재배열 규칙에 입력되는 기저형의 재분석등의 문법변화를 예시하고 있다. 또 이같은 종류의 연구방법이 널리 모방되고 있다. Kiparsky의 불투명성원리(Opacity Principle)이나 Kaye(1973)의 복원가능성원리(Recoverability Principle)는 문법이론의 일부 기능이지 변화이론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앞서 말한 투명성원리(Transparency Principle)처럼 이 원리들도 하나의 문법원리 또는 문법이론인데, 그것은 Kiparsky(1974)의 말대로 '기술적인 엄격성만 고집해서는 거의 발견될 수 없고, 역사언어학자와 사회언어학자와 그밖에 다른 쓰스에서 오는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하나의 문법원리일 뿐 형식화된 변화이론은 아니다.

변화에 대한 이같은 정의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논저에는 '통시적 변화 과정들'에 대한 언급으로만 가득하다. 여기서 언급되는 '통시적 변화의 과정들'이란 하나같이 형식화 내지 공식화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흔히 문법이론과 변화이론을 혼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Givón(1976)은 통사변화가 하위절에 보다는 상위절에서 먼저 일어나는 통시적 변화과정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정'이지 변화이론은 아니다.

변화이론과 문법이론을 구별하는 선을 일단 그으면, 어떤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변화이론이 변화에 과하는 기능내지 제약이 아니라 문법이론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논저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시적 변화에 대한 많은 주장들은 문법, 변화, 지각전략(perceptual strategy)에 대한 이론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론이전의 관찰자료들을 이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순(word order)에서 여러점의 중심매물(centerembedding)을

금하고 있는 지각전략에 관한 Kuno(1974)의 연구와 이 연구에 기초한 그의 통시적 관찰(즉, 문법이 VSO로부터 SOV로 바뀔때 이 문법은 외치변형규칙을 발전시킨다는)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이는 이같은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면 하나의 변화이론을 요한다고 주장할런지 모르나 실은 이것은 이론이전의 관찰일 뿐이다.

Kuno의 지각전략은 다음과 같다 :

- (13) a. 어떤 통사패턴(중심매물, 특히 접속사 병렬)은 지각곤란을 야기한다.
b. 언어는 이같은 지각곤란을 야기하는 통사패턴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그는 Chomsky(1961)와 Yngve(1960)의 연구를 한층 더 밀고나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내놓고 있다 :

- (14) a. 중심매물은 일반적으로 좋지않다.
b. 동일한 문법기능이나 동일한 형태를 지닌 절이나 구가 연속되는 중심매물은 더욱 좋지않다.
c. 접속사가 병렬된 동일형태나 동일한 문법기능을 지니고있는 절이나 구의 중심매물은 가장 나쁘다.

Kuno는 이같은 가정하에서 절앞머리에 접속사가 있는 SOV언어는 '참상('disastrous situation')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 (15) a. [that [that the world is-round] is-obvious] is-dubious.
b. John [that [that the world is-round] is-obvious] says
c. [that everyone [that the world is-round] knows] is-obvious
d. John [that everyone [that the world is-round] knows] says

반면에 VSO언어는 절 앞머리에 접속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매물이나 접속사병렬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 (16) a. is-dubious that is-obvious [that is-round the world]
b. says John that is-obvious [that is-round the world]
c. is-obvious that knows everyone [that is-round the world]
d. says John that knows everyone [that is-round the world]

SVO언어는 '주어가 동사의 왼쪽에 놓인다는 점에서 SOV언어와 같으며, 목적어가 동사의 오른쪽에 놓인다는 점에서 VSO언어와 같다. 그러므로 만일 SVO언어가 절 앞머리에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 목적어의 자리에 절이 놓이면 유리하고 주어의 자리에 절이 놓이면 불리하다'는 것이 Kuno의 가정이다.

- (17) a. [that [that the world is-round] is-dubious
b. John says [that [that the world is-round] is-obvious]

- c. [that everyone knows [that the world is-round]] is-obvious
 d. John says [that everyone knows [that the world is-round]]

여기서 지각곤란을 회피하는 방법은 외치변형(Extraposition)을 원용하는 길이다.

- (18) a. [that it is-obvious [that the world is round]] is dubious
 b. it is dubious [that it is obvious [that the world is round]]

a는 외치변형을 한번 적용시킨 결과이며, b는 두번 적용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절 앞머리에 접속사가 놓이는 SOV언어는 이중중심매물을 피하기 위한 외치변형이나 그밖에 다른 장치없이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하다. SVO언어의 경우는 이보다는 덜 하며 외치변형이라는 치료장치(therapeutic device)가 다급하지 않다. 독일어는 종속절에서는 SOV패턴이고 주절에서는 SVO패턴이기 때문에 좋은 예를 제공해 주고있다. 독일어에는 종속절에 대물문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외치변형을 원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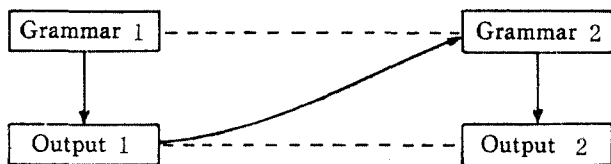
- (19) a. *ich denke dass dass die Erde rund ist, deutlich ist.
 b. ich denke dass es deutlich ist, dass die Erde rund ist.
 c. *ich denke dass Maria dass die Erde rund ist, glaubt
 d. ich denke dass Maria glaubt dass die Erde rund ist

그러므로 Kuno는 SOV언어에서 외치변형의 부득이한 사용에 대한 지각적 전략의 관점에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의 초기단계에서도 SOV어순이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인 주어절이 항상 외치어 자리(extraposed position)에 놓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그렇게 놓이고 있다. Kuno의 분석에 따르면, 언어가 SVO로 변할때 보문절(sentential complements)이 반드시 외치의 자리에 놓여야 된다는 지각전략적인 요구가 덜 심하며, 영어에서도 우리는 보문절이 논리적 주어의 자리에도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 언어가 VSO에서 SOV로 바꿀때 그 언어는 외치변형 장치를 개발하게 되며, SOV에서 SVO로 바꿀 때는 주어절의 위치가 교체되어 문장의 맨 오른쪽에 놓이기도 하고 주어의 자리인 문장의 왼쪽 끝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외치변형규칙의 발달은 초기의 VSO→SOV어순변화의 결과이다 이 변화는 어순변화 및 외치변형 양자가 모두 통사부문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인과관계는 이중 중심매물을 기피하는 지각적 제약 또는 전략에서 비롯된다. 어떤 언어는 VSO어순에서 SOV어순을 도입함으로써 그 결과 이중중심매물을 도입하게 되고 여기서 야기되는 지각적 곤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치변형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문법과 변화에 대한 견해와도 완전히 일치하며 자율통사론(autonomous syntax 또는 autonomy hypothesis)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SOV언어에는 일반적으로 외치변형 규칙이 있는데 반해서 VSO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가정은 '이같은 인과관계를 제공해주는 Kuno의 지각전략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하나의 변화이론 즉, VSO→SOV 변화는 곧 외치변형규칙이 뒤따른다는 '변화이론'이, 관찰된 통시적 사실들의 함축 의미에 관해 반드시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들 통시적 사실들은 하나의 문법기술 내지 이론과, 이중중심매물은 유별나게 표가 난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하나의 지각제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시적 사실들이 제공하는 이론 이전적인 견해를, 있을 수 있는 변화와 있을 수 없는 변화를 규별 짓는 변화이론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는 부당하다.

변화에 대해서 문법이론이 과하는 본격적인 제약외에 다른 제약이나 다른 변화이론은 없다는 것이 Lightfoot (1979)의 제안이다. 투명성원리와 같은 제한적인 문법이론은 있을 수 있는 변화에 엄격한 제한을 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문법이론이 과하는 제약외에 다른 제약을 예측할 수 없다. 세대(generation)마다 새 문법을 처음부터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한 세대의 화자들은 입수할 수 있는 제일차적인 언어자료에 입각해서 문법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문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만일 제일차적 언어자료가 다소 다른 경우 이를 가정하는 문법도 또한 달라질 것이고, 그 문법이 자기들 부모의 문법과 밀접한 형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결국 출력(output)이라는 표면구조에서 생기는 사소한 차이는 문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고 그역(逆)일 수도 있다(cf. Fasold (1976); Hale (1974)). Henning Andersen(1973)의 도표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0)



문법 1은 출력 1을, 문법 2는 출력 2를 생성한다. 문법 2는 앞세대의 문법 1의 출력 1에서 추론된다. 만일 두개의 출력이 다르면 두개의 문법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두개의 출력이 같더라도 두개의 문법이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출력이라함은 생성된 문장들과 그 문장들의 해석이며 구조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Andersen은 이것을 外轉的變化('aductive change')라고 부르고 있다. 이같은 출력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20)에서 보듯이 두개의 문법과 두개의 출력 사이에는 화살표가 없다. 두개의 문법과 두개의 출력을 각각 관계지워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Andersen은 이런 관계를 擬似關係('pseudo-connections')라고 지칭하고 있다. 세대마다 그들이 구성하는 문법은 언어능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문법 1을 추리해내는 기초가 되는 출력 1이 문법 2를 추리해내는 근거가 되는 출력 2와 조

그만치라도 다를때 문법이론이 요하는 것 이상으로 무리해가면서 G1과 G2가 유사하거나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문법들은 부단하고 차분한 변모를 겪으면서 시공을 통해서 매끄럽게 흘러가는 물체들이 아니다. Andersen(1973 : p.790)의 말을 인용하면, 화자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재화된 문법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연속적인 실체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언어가 지니는 연속적인 상태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연구만 해서 변화에 대한 여하한 설명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 그는 계속해서 음운론의 통시적인 연구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자는 의사관계('pseudo-connections)를 상술할게 아니라 왜 재분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히려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초기구조주의 학자들은 음운체계가 음성적 변이형들에 얼마간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모든 음성적인 새변화들(innovations)은 그 변화를 「겪는」 체계의 시각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이론은 모든 음운론적 변화는 그 변화를 「초래하는」 체계의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후의 연구(1974)에서 그는 통시적으로 각 시대의 문법들의 형태를 기술하고 있을 수 있는 형태간의 차이를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Langacker(1977)는 형태론의 분야에서 세대간의 문법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재분절화(re-segmentation), 재공식화(re-formulation)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들은 각각 다음 세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다는 점과, 변화는 돌발적이고 그변화를 일으키는 체계의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법이론과는 독립된 별개의 통시적 보편성(diachronic universal) 즉 변화이론을 찾기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Bibliography

- Allen, C. (1975) 'Old English modals'. In Grimshaw (1975b). pp.99, 106.
- Andersen, H. (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4, 765-93. pp.148, 151, 225, 232, 348-50, 381.
- Anderson, J.M. & C. Jones, eds. (1974) *Historic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North Holland. pp.vii, 365.
- Antti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pp.136, 154, 156, 159, 161-4.

- Bally, C. (1976) *Le langage et la vie*. Paris: Payot. p.124.
- Canle, M. (1976) 'Implicational hierarchies of word order relationships'. In Christie (1976). pp.98, 107, 398, 400-1.
- _____ (1978) 'Word order change in OE: base re-analysis in generate gramma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pp.302, 395.
- Chomsky, N. (1961) 'On the notion 'rule of grammar''. In *Proceedings of the Twelfth Symposium in Applied Mathematics*, vol. 12,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Providence, RI, 6-24. p.145.
- _____ (1977) 'On wh Movement'. In Culicover, Wasow & Akmajian (1977). pp.20-1, 57-8, 62, 65, 68, 71, 73-4, 174, 278, 298-9, 304-5, 307, 317-20, 336, 347.
- de Rijk, R. (1972) 'Relative clauses in Basque: a guided tour'. In *The Chicago which hunt*.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p.126.
- Dillard, L. (1972) *Black English: its history and usage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Vintage Press. p.126.
- Emonds, J. (1972) 'A reformulation of certain syntain syntactic transformations'. In S. Peters, ed. *Goals of linguistic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190-1, 193, 202-4, 210-11, 327.
- _____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pp.21, 57, 126-8, 130, 158, 197-8, 202, 220, 304, 311, 328, 337, 339, 377.
- Fasold, R.W. (1976) 'One hundred years from syntax to phonology'. In Steever, walker & Mufwene (1976) pp.147, 377.
- Givon, T. (1971) Historical syntax and synchronic morphology: an archaeologist's field trip'. In *Papers from the 7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ago Linguistic Society. pp.8, 160, 390, 399.
- _____ (1976)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 in Li (1976). pp.126, 128, 144.
- Green, G.M. (1976) 'Main clause phenomena in subordinate clauses'. *Language* 52.2, 389-97, p.127.
- Haiman, J. (1974) *Targets and syntactic change*. The Hague: Mouton. pp.131-2, 142.
- Jeffers, R. (1976a) 'Syntactic change and syntactic reconstruction'. In Christie (1976) pp.155-7, 163-6.
- Jenkins, L. (1972) 'Modalish syntax'.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 Mass. p.131.
- Kaye, J. (1973) 'Opacity and recoverability in phonology'.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19.2, 134-49, p.144.
- _____ (1975) 'A functional explanation for rule ordering in phonology'.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functionalism*.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p.136.
- Kellner, L. (1982) *Historical outlines of English syntax*. London: Macmillan. pp.108,170, 175-6, 178,389.
- Kiparsky, p. (1968a)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 Bach & R.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p. 13,17,143,147,364,407.
- _____ (1968b) 'How abstract is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pp. 13, 338.
- _____ (1968c)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4.1, 30-57, pp.25-7, 142.
- _____ (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W. Dingwall, 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College Park, Maryland: Linguistics Program, University of Maryland. pp.136,144.
- _____ (1974) 'Remarks on analogical change'. In Anderson & Jones (1974). pp.144, 154,348,361,365.
- Kuno, S. (1974) 'The position of relative clauses and conjunctions'. *Linguistic Inquiry* 5.1, 117-36, pp.144-7, 209, 393-5.
- Lakoff, R.T. (1968) *Abstract syntax and Lation complement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pp.14,36-41,100,113,202,316,382.
- Languacker, R. (1977) 'Syntactic re-analysis', in Li(1977). pp.124,346,374-5,407.
- Li, C.ed. (1977)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vii, 154-5,166,388,397,400.
- Lightfoot, D.W.(1974b) 'The diachronic analysis of English modals'. In Anderson & Jones (1974). px
- _____ (1975a) 'Diachronic syntax: extraposition and deep structure re-analysis'. In E. Kaisse & J. Hankamer, eds. *Proceedings of the 5th meeting of the North-eastern Linguistic Society*. Cambridge, Mass.: Harvard Linguistics Department; and in *Folia Linguistica* 9. px.
- _____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3) *The Language Lottery*, MIT Press.

- McCawley, J.D. (1970) 'English as a VSo language'. *Language* 46.2, 286-99, p.367.
- _____ (1975) 'The category status of English modals'. *Foundations of Language* 12.4, 597-601. pp.98, 115.
- Parker, F. (1976) 'Language change and the passive voice'. *Langugae* 52.2, 449-60, pp. 151, 240, 245-6, 251, 348.
- Paul, H. (1880) *Prinzipien der Sprachichte*. Halle: Max Niemeyer. pp.8, 9, 124, 353, 378.
- Posner, R. (1974) 'Ordering of historical phonological rules in Romance'.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98-127, p.136.
- Pullum, G.K. & D. Wilson(1977) 'Autonomous syntax and the analysis of auxiliaries'. *Language* 53.4 pp.115, 130.
- Ross, (1969a) 'Auxiliaries as main verbs'. In W. Todd, ed.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Series I. Evanston: Great Expectations. pp.81-92, 95, 98, 113, 115, 125, 133-4.
- Samuels, M.L. (1965) 'The role of functional selection in the history of English',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5-40. p.124.
- Sapir, E. (1921) *Language*. New York: Harcourt. pp.42, 124, 386, 389, 392, 406.
-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 Payot. p.124.
- Stockwell, R.P. (1976) Reply to Lightfoot (1976b). In Christie (1976) pp.100, 153, 196.
- Strang, B.M.H. (1970) *A history of English*. London: Methuen. pp.113, 179-9, 263, 276, 389, 392-3.
- Traugott, E. [Closs] (1965) 'Diachronic syntax and generative grammar'. *Kanguage* 41.2, 402-15. pp.15, 24, 28-35, 41, 152, 202.
- _____ (1972a)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pp.99, 241, 274-5, 300, 320, 331, 381.
- _____ (1972b) 'On the notion 'restructuring' in historical syntax', In *Proceedings of the XI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inguists*, Bologna; and in *Stanford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2. p.100.
- Visser, F. Th. (1963~7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vols. 1-IIIb. Leiden: Brill. pp.vii, 99, 102, 105, 109-10, 112, 190-4, 200, 229-34, 258, 260, 262-70, 274-6, 278-9, 298, 329.
- Yngve, V. (1960) 'A model and a hypothesis for lange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04, 444-66. p.145.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f OE Modals and a Theory of Grammar**In-Sook Ki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OE pre-modals (*sculan, willan, magan, cunnan, motan*) and to find whether there is a theory of change beyond a theory of grammar.

When we view the history of the English modals we can find five early changes, affecting different aspects of the grammar at different times, and making the pre-modals exceptional verbs with the special properties. This was followed by a re-analysis best described as the introduction of a new Modal category, a reformulation of two transformations and the appearance of new lexical items *have to, be able to, and be going to*.

Reasons for these five early changes cannot be provided, but they must be regarded provisionally as a function of chance, caused by extra-linguistic factors of some kind. However, the net result of these changes was a situation where categorial membership of *must, may, will, etc.*, was opaque and the degree of opacity approached the limits described by the theory of grammar. Therefore, a therapeutic re-analysis was required, imposed by the theory of grammar. With the introduction of a category modal, further changes were required—as a matter of necessity, imposed this time by the theory of change. If there were no further changes, the existing rules of Neg-Placement and Subject-Verb Inversion would yield quite different surface patterns, of a kind to strain communicability across generations to breaking-point. We have shown that grammars are created anew by each successive generation and that changes may be radical and are to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system which gives rise to them, and that we should not expect to find a 'diachronic universal' or the theory of change independent of a theory of grammar.